

35개국 특파원이 전하는 세계 소식

60억 명이 공존하는 지구에서는 천태만상, 다종다양한 일들이 시시각각 벌어집니다. 그중에는 이역만리까지 알려지는 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부터 멀리는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35개국 46개 지역에 상주하는 특파원과 통신원 60여 명의 광범위한 해외 통신망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파원들이 보내온 소식을 전합니다.

호주



▶ 해안선 상승이 두려운 호주의 동부 해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호주의 해안가 주요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건물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바닷가와 인접한 아름다운 관광지인 골드코스트의 고급 주택지 모습. **골드코스트** 이경욱 특파원

두바이



▶ 세계 最高(828m)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1월 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문을 열었다. '부르즈 두바이(Burj Dubai)'로 알려졌던 이 빌딩은 개장과 함께 이름이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로 바뀌었다. 칼리파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통치자에게서 따온 것이다. 828m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 개장식에서는 스카이다이버의 고공낙하쇼, 분수쇼, 불꽃놀이 등이 펼쳐졌다. 2005년 2월 착공 이후 12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르즈 칼리파는 162층으로 구성됐으며, 연면적은 약 50만㎡로 서울 코엑스물면적의 4배, 잠실종합운동장의 56배에 이른다. 건물 124층에는 '정상에서(At the Top)'라는 명칭의 전망대가 마련됐다. **두바이** 강종구 특파원





항저우

▶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가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혔다. 항저우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중국 행복 도시' 조사에서 매년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요망동방주간이 중국시장협회 등과 4개월에 걸쳐 도시별 자연환경과 교통 상황, 문명 정도, 사업 기회, 의료위생, 교육, 치안 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상하이 김대호 특파원

▶ '죽음의 땅' 아이티를 가다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아이티에 진도 7.0의 메가톤급 강진이 발생했다. 수도인 포르투프랑스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물 잔해로 인해 도심은 폐허가 됐다.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가 전달되고 있지만 비참한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포르투프랑스 김지훈 특파원

아이티



하얼빈

▶ 얼음의 향연, 하얼빈 빙설제

캐나다 퀘벡의 겨울 축제,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빙설 축제로 떠오른 중국 하얼빈(哈爾濱) 빙설제가 1월 5일 밤 막을 올렸다. 2월 5일까지 계속되는 축제는 하얼빈의 젓줄인 송화(松花) 강변에 자리 잡은 자오린(兆麟) 공원과 타이양도(太陽島) 공원에서 진행된다. 실물을 방불케 하는 조각들이 형형색색의 조명과 어우러지며 동화 속의 장면을 연출한다. 하얼빈 박종국 특파원

러시아

▶ 혹한 속 바다 수영대회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월 5일 '얼음물 수영대회'가 개최됐다. 대회는 혹한으로 인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을 만큼 굳어붙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의 얼음을 깨 만든 수영장에서 25m, 50m, 100m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블라디보스토크 강창구 특파원

